대형차량(버스·화물차) 고속도로 안전운행 협조

□ 추진 배경

- 가을 행락철 여행 수요증가에 따라 대형버스 이용량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,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의식 필요
- 대형차량 운전자의 과로 및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
 큰 피해가 불가피하여 단속 외에 관리자의 관심 적극 요구

□ 협조사항

- 유관단체 소속 운전자 교통안전 당부
- 붙임자료(주요 사고 유형)를 참고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단체소속의 대형차량 운전자 교육 실시 등 관리 강화 당부
- 속도제한장치 제거·판스프링 등 차량 불법 개조행위 자진 개선 및 노후 차량의 정비불량 사고예방위한 정비·점검 협조
- 행락철 상습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항목 알림
-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 집중단속실시
- 행락철 승합차량 주요 법규위반행위 테마단속
 - ※ 암행순찰차를 활용하여 대열운행·과속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실시
- 행락지 주변 주·야간 불문 상시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 실시 ※ 대형버스의 차량 내 음주가무 방조행위 관련 112신고 적극 대응
- □ **향후**, 예방 및 단속 활동 추진하여 미흡한 항목은 유관기관 협조

붙 임 │ 대형차량 고속도로 주요 사고 유형

□ 내열운행

- ▶ 6.16.() 13시경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IC램프구간에서 고속도로 진입 도중 신호등에 걸려 급 정지한 차량의 후미를 6대의 차량이 연이어 추돌하여 수 학여행 관광버스 포함 대형버스 다중 추돌사고 발생(3명, 경상 69명)
- ▶ 10.6.(금) 10시경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구봉터널 내에서 차량정체로 급 정지하 는 덤프트럭을 뒤따르던 현장 체험학습 버스 2대가 추돌한 사고(경상 8명)



- 문제점 : 대형차량의 무리한 대열운행으로 급격한 차선변경 및 대열 외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난폭행위 등 위험운전 병행
 - ⇒ 무리한 대열운행을 지양하고, 휴게소·졸음쉼터 등 집결 구간을 지정하여 운행 중 중간 차량 점검 및 짧은 휴식을 병행하며 운행

□ 안전때 미착용

- ▶ 6.20.(화) 8시경 영동고속도로 원주IC에서 대형버스 운전자가 운행 중 기침으로 핸들이 틀어져 중앙분리대 충돌 후 운전자는 차량에서 이탈 되어 큰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(운전자 중상, 승객 4명 경상)
- ▶ 8.13.(일) 14시경 동해고속도로 북양양IC에서 스타렉스의 운전자가 정비불량 에 따른 뒷바퀴 펑크로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한 사고에서 탑승자 5명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동승자 1명만 차에서 튕겨져 나와 현장 사망



- **문제점** : 경미한 충돌사고임에도 고속도로 주행 특성상 **안전띠** 미착용 탑승자가 차량을 이탈하여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다수
 - ⇒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운전자뿐만 아 니라 동승자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

□ 버스전용차로 돌발대응

- ▶ 10.9.(월) 20시경 영동고속도로 덕평IC에서 승용차 선행사고로 버스전용차로까지 침범해 있던 사고현장을 들이받으며 **사고현장에 있던 보행자 2명을 차례로 충격한 사고**
- ㅇ 문제점 :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국도와 달리 정체되어 있는 바로 옆차선과 속도차이가 크므로, 전용차로 이용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

□ 안전거리 미확보

- ▶ 1.6.() 17시경 제2중부고속도로 곤지암IC부근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해 있던 승용차들을 고속버스가 연쇄적으로 6대 추돌한 사고(1명, 중상 1명, 경상 6명)
- ▶ 8.15.(목) 3시경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상일IC부근에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선행차량을 피하려 정지한 차량들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연쇄 추돌한 사고로 <mark>화물차 운전자 현장사망</mark>



- 문제점: 대형차량 특성상 승용차에 비해 무거운 하중과 큰 차체로
 긴 제동거리가 필요함에도 일부 운전자들이 안전거리를 준수하지
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음
 - ⇒ 대형차량 운전자의 경우 승객 또는 화물 적재시, 평시 보다 더욱 안전을 확보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당부

□ 정비불량 및 2차사고 등

- ▶ 2.22.() 9시경 경부고속도로 증약터널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해있던 승합차를 후행하는 화물차량이 충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
- ▶ 6.6.(화) 14시경 광주원주선 동여주IC 부근 삼산교위에서 화물차가 2차로 주행 중 보조석 뒷바퀴가 터지며 갓길 방호벽을 충격하며 운전자가 현장 사망한 사고



- 문제점: 차량 정비에 대한 미흡으로 인한 1차적인 문제와 고속 도로에서 고장 등으로 돌발상황 발생시 대피하지 않고 맨 몸으로 도로를 배회하거나 차량내에 탑승한 채 대기하여 후행차량과 충돌
 - ⇒ 특히 운행시간, 거리가 많은 승합·화물차는 출발전 점검을 실시하고, 고속도로 본선 또는 갓길에서 차량 고장시 최소한의 안전조치(비 상등, 트렁크 개방 등) 후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여 신고 등 처리